"북한군 개입·폭동"…오월 역사왜곡 '여전'

5·18 기념재단, 상반기 모니터링
온라인 게시 949건 중 609건 삭제
폄훼 콘텐츠 303건…5월달 집중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 왜곡·폄훼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올 상반기 홈페이지 내 '5·18 왜곡제보' 게시판 운영과 자체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유튜브 포함) 콘텐츠 949건 중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등' 게시물 609건 삭제 조치했다.

이중 폭동이 726건(77%)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군 개입 139건(15%), 기타(과정 왜곡, 유공자 허위사실 등)가 84건(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왜곡·폄훼 콘텐츠는 1·2월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월 170여건 생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5월에는 왜곡·폄훼 게시글 303건이 집중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게시글은 340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월별로는 ▲1월 48건 ▲2월 30건 ▲3월 100건 ▲4월 73건 ▲5월 51건 ▲6월 38건이 접수됐다.

재단은 또 허위 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온·오프라인 서점 450여 곳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출판·배포 금지 판결을 받은 5·18 왜곡 도서의 판매와 비치 현황을 조사해 5·18왜곡 도서의 판매 및 대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 대학 및 국공립도서관 대상 5·18 처리 현황을 보면 '전두환 회고록' 16권,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11권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방송·언론·유튜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유튜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5월 한 달간 올라온 영상 중 문제 영상을 모니터를 진행했다.

검색된 799개 영상(중복포함) 중 34개는 왜곡·폄훼 표현이 포함된 문제 영상을 확인하고 문제 영상 모두 유튜브를 통해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 민원을 신청한 상태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준 구독자 수 상위 15개 매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사와 해당 기사의 댓글을 모니터해 왜곡·폄훼 표현을 분석했다.

문제 표현이 담긴 댓글은 1,195개로, 모두 네이버를 통해 신고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왜곡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며 "단순한 비방과 왜곡 행위는 삭제 요청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 법에 저촉되는 허위조작 정보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채민 기자

건강보험 지원법 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이 13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김대중 도교육감 첫 인사 '전문성 결여' 논란

시설과장 자리에 행정직 발탁
노조 "순환보직제 시행해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취임한 후 단행한 첫 정기인사에서 시설과장 자리에 행정직이 발탁돼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주민직선 4기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박영수 장성공공도서관장이 행정국장에 승진 발탁되는 등 주요보직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행정직이 시설과장으로 발탁되면서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으로 5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다"며 "학생안전과 직결된 시설과장은 다년간의 학교 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직렬을 배제하고 타직렬을 보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감은 일반직의 행정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남교육 대전환의 동력으로 순환보직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정체됐던 승진 인사 등 여러 요인을 감안했다"며 "시설과장 자리는 이번 정기인사 전에도 행정직이 맡은 적이 있고, 복수직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포용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
이정선 교육감, 첫 기자회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3일 "혁신교육을 넘어 포용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광주교육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을 추진하겠다"며 "공부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미래기술을 반영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급식종사자들이 반대하는 방학 중 무상급식에 대해선 "무상 교육의 취지를 살려 여름방학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공평성, 형평성 문제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대 모 학장, 교수채용 개입 의혹…감사 착수

전남대 단과대학 학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응모를 포기하라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돼 학교가 감사에 착수한다.

13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모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전남대 모 학과 교수 공개채용에 응모해 최근 면접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당시 6명이 지원해 A씨가 단수로 정성택 총장 주재로 면접을 봤다.

그러나 면접 심사 전 해당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학장 B씨가 A씨에게 특정 교수와 친분설을 제기하며 응모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B 학장과 통화명세를 확인서 형태로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전남대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 등으로부터 통보받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추진

전남도교육청은 근무경력, 나이, 공·사립 차별 없이 학교 급식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급식종사자 폐암의 원인이 기름을 이용한 튀김·부침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oil fume)이 위험도를 높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중 전국에서 14건이 업무상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전남은 1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역 내 학교 급식종사자 4,014명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동의자에 한해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융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4천)

3) 평수140평, (전용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